

박인환 시의 현실과 시적 대응

김 은 철*

〈목 차〉

- | | |
|-------------------------------------|------------------------|
| 1. 서론 | 3. 중기의 시 - 전쟁의 사적 체험 |
| 2. 초기의 시 - 이념의 회피,
정서적 상관물로서의 현실 | 4. 후기 - 아메리카시초에 나타난 의식 |
| | 5. 결론 |

【요 약】

박인환의 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그의 시에 나타나는 리얼리즘 경향, 혹은 현실주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시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표명하지 않았고 퇴행적이고 관념적인 ‘시의 원시림’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시작 전시기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의 초기시에는 현실주의적 경향의 시들이 다수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색적이지만 그것은 민족의 구체적 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제 3국의 사정을 설정하고 있고 그에 빗대어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지만 시대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는 이념문제가 표출된 민족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였거나 그들이 내세운 세계주의의 결과일 것인데, 어쨌든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문명과 자

* 상지대학교

본에 대해서, 또 세계적인, 인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민족이 처한 눈앞의 구체적 현실, 유독이 이념의 문제에는 소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의 시작 전 시기에 걸쳐서 확인되는 것이었다.

중기에 주로 나타나는 전쟁 소재의 시들은 6.25전쟁 자체가 표면적이고 일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을 뿐, 전쟁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나, 6.25 전쟁이 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즉 그는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는 전쟁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대응한 결과이다.

후기의 미국여행기에 쓴 시편들은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과 동경이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고 민족의식이 나타나지만 소극적이며, 대개의 경우 소재적 차원에 머물거나 정서적 매개물 이상으로 심화, 확대되지 않았다.

1. 서론

박인환은 1926년 8월 15일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1920년대, 그리고 그가 성장한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 식민지배가 구축, 심화되던 시기였고 문학사적으로는 한국 근, 현대 문학이 형성되어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1945년 광복이 되던 해는 박인환이 20세가 되던 때이고 이 때부터 그는 문학에 뜻을 두고 본격적으로 문단과의 접촉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1950년부터 3년간의 한국전쟁을 겪었고 1956년 3월 20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그는 1946년 12월에 <국제신보>에 시 「거리」를 발표하면서 등단, 약 10년간에 걸쳐서 73편의 시와 10편의 평론을 남겼고 무엇보다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박인환은 주로 이 두 작품이 그의 대표적인 시세계

로 알려져 있거나 연구경향에 있어서는 후반기 동인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후기 모더니스트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 평가는 김춘수¹⁾의 지적을 대표로 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한 편, 해방 이후의 문학적 공백기를 매우면서 교량역할을 담당하여 한국문학의 맥을 이어주었고, 해방 이후 최초로 나름의 이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²⁾

근래 들어서 연구의 방법이 다각화 되면서 박인환의 작품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의 시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³⁾ 특히 최근의 연구 성

1) 김춘수는 후반기 동인들의 시사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청록집]에 대립한 [후반기] 동인회의 사적 의의와 30년대의 모더니즘이 그 이전의 시에 대립한 사적 의의는 전자가 후자만 못 하고, 악센트가 매우 약하다고 해야 하겠다. [후반기] 동인회의 최대의 약점은 사적으로 볼 때 잠깐 잊혀지고 있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이목을 어느 정도 끌게 했다는, 이른바 선언적 역할에 그쳤지 실(질이라고 해도 되겠다)에 있어서 30년대를 능가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이미 말한대로 시적 발상태에 있어서는 그들 자신의 선언(의도)과는 달리 전통적 발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한다.”

김춘수,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 지성사, 1976. 140면.

2)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사, 1989.

3) 박인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박인환전집』, 문학세계사, 1986.을 필두로 하여 이동하, 『박인환』, 문학세계사, 1993. 김영철, 『한국 전후 문학의 기수 박인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20세기 한국시 연구』, 새문사, 1989. 송기환,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1. 박민수,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국학자료원, 1996. 이지엽, 『한국전후시 연구』, 태학사, 1997. 류순태, 『한국 전후시의 미적 모더니티 연구』, 월인, 2002. 박윤우,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은영,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0. 등이 있다.

과들은 그의 시세계에서 현실지향의 면모를 밝히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⁴⁾

이러한 평가들은 <후반기> 동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이면서 박인환 개인에 대한 평가로 확대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박인환은 ‘해방후 『신시론』,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후반기』 동인을 주도했으며 1950년대 전후 문단의 총아로 군림⁵⁾했기 때문이다.

“문학은 사회적이며 자율적이다.”⁶⁾라는 아도르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작품은 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가 경험하는 시대·사회적 상황이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박인환이 살았던 192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가 한국 역사상 미증유의 질곡의 시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시대적 현실을 작가가 어떻게 인식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는가는 그 자체가 큰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박인환은 후반기 동인들⁷⁾ 중에서도 가장 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시작 경향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와 리얼리즘 계열의 시로 나누어질 수 있다’⁸⁾고 본다면 그의 현실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곧 그의 시적 본질에 도달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후반기 동인들에 대한 평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4) 김영철, 앞의 책. 한명희, 『박인환 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85집, 2004, 9.

5) 김영철, 앞의 책, 105면.

6) T.W.Adorno, C. Lenhardt(trans.) Aesthetic Theor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New York, 1984, p.320.

7) 후반기 동인의 결성시기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다. 김은영은 고정멤버를 김경린, 박인환, 김규동, 이봉래, 조향, 김차영으로 보고 있다. 김은영, 앞의 논문 참조.

8) 김영철, 앞의 책, 107면.

2. 초기의 시 - 이념의 회피, 정서적 상관물로서의 현실

박인환의 시작 시기는 대체로 전쟁 전과 전쟁 후로 나누어지는데 전쟁 후는 다시 2-3 시기로 구분되기도 한다.⁹⁾ 먼저 그의 초기시를 살펴보자.

나의 시간에 스코올과 같은 슬픔이 있다
 붉은 지붕 밑으로 鄉愁가 광선을 따라가고
 한없이 아름다운 계절이
 運河의 물결에 씻겨 갔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간 날의 童話를 운율에 맞춰
 거리에 花液을 뿌리자
 따뜻한 풀잎은 젊은 너의 탄력같이
 밤을 地球 밖으로 끌고 간다

지금 그곳에는 코코아의 시장이 있고
 과실처럼 기억만을 아는 너의 음향이 들린다
 少年들은 뒷골목을 지나 교회에 몸을 감춘다
 아세틸렌 냄새는 내가 가는 곳마다
 陰影같이 따른다.

거리는 매일 맥박을 닮아 갔다

9) 박민수는 박인환의 시적 변모과정을 <1>초기(전쟁이전)의 시 <2>전후의 시 <3>미국 여행기의 시 <4>말기의 시로 4기로 구분하고 있고 김은영은 <1>초기시, <2>중기시, <3>말기시로 나누고 있다. 김은영의 구분은 전쟁을 중심으로 하여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김은영의 구분을 따르면서 초기시(전쟁이전), 중기시(전쟁이후), 후기시(미국여행기의 시 이후)로 구분하기로 한다. 박민수, 앞의 책, 김은영, 앞의 논문 참조.

베링 해안 같은 나의 마을이
떨어지는 꽃을 그리워한다
황혼처럼 장식한 女人들은 언덕을 지나
바다로 가는 거리를 순백한 式場으로 만든다

戰庭의 樹木 같은 나의 가슴은
베고니아를 끼어안고 氣流 속을 나온다
망원경으로 보던 千萬의 미소를 회색 외투에
싸아
얼은 크리스마스의 밤길로 걸어 보내자

- 「거리」전문-10)

이 작품은 1946년 12월 <국제신보>에 발표한 박인환의 데뷔작이다. 먼저 이 작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스코올, 코코아, 아세틸렌, 베링, 베고니아,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이국취향적 문명어들이며 황혼, 회색외투, 낙화, 향수, 지난 날의 동화 등이 슬픔과 동반되는 감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이미지들, 순간순간 등장하는 외래어들은 다소 산만하게 병치되어 있어서 통일성을 저해하며 돌출되는 느낌을 준다. 비유법의 사용도 어색하지만 역으로 외래어가 사용됨으로 해서 참신함을 더 하고 ‘한없이 아름다운 계절이 운하의 물결에 씻겨 갔다’거나 ‘스코올과 같은 슬픔’, ‘맥박을 닮은 거리’ 등의 감각적 표현은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즉 데뷔작인 이 작품의 경향으로 볼 때 박인환은 모더니즘을 지향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비애와 우수의 그림자가 따라다니’¹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더니즘을 지향하면서도 지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박인환의 시작 전 시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어서 그의 시의 특질이라고 할 수

10) 이하 인용시, 인용문은 문학세계사의 『박인환 전집』에 따름.

11) 김영철, 앞의 책 173면.

도 있을 것이다.

박인환에게서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김정린, 김수영 등과 함께 <신시론>을 결성하고 『새로운 도시...』를 발간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신시론>의 입장은 해방 정국에서 좌우익의 혼란한 정세에 초연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었지만 박인환에게서는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역사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¹²⁾

나는 不毛의 文明, 資本과 思想의 不均整한 싸움 속에서 市民精神에 離反된 言語作用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었다. (중략) 資本의 軍隊가 進駐한 市街地는 지금은 憎惡와 안개 낀 現實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낸날 노래하였던 植民地의 哀歌이며 土俗의 노래는 이러한 地區에 가란져간다.

그러나 永遠의 日曜日이 내 가슴 속에 찾아든다. 그리할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과 詩의 散策의 발을 움겼던 郊外의 原始林으로 간다. 風土와 個性과 思考의 자유를 즐겼던 詩의 原始林으로 간다. 아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無數한 薔薇들의 뜨거운 溫度¹³⁾

이 글에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현대는 불모의 문명,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터이며 자본의 군대가 진주하여 증오와 안개 낀 현실만이 존재한다.
- 2> 시민정신에 이반된 문학(언어작용)은 어리석은 것이다. 따라서 지낸날의 애가나 토속적인 노래는 적절하지 않다.
- 3> 현실이 이러하기에 나는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가 있는 시의 원시림으로 간다.

즉 그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시민정신에 부합되는 문학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가 말

12) 김은영, 앞의 논문, 90면.

13) 박인환, 「서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도시문화사, 1949. 53면.

하는 시민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나타난 것들의 반대명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즉 불모의 문명에 대한 것,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일 것이다. 자본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실, 그리고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에 의한 것, 즉 구체적으로는 해방기의 좌우익의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리고 신제국주의의 팽창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 그가 말하는 시민정신일 것이다.

2>는 과거의 문학이 이미 현실의 시민정신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곧 <후반기> 동인들이 반대명제로 내세운 <청록집>류에 대한 부정이라 짐작할 수도 있고 급변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대응을 내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는 초기에 해당하는 해방기의 문학에서 그가 말하는 시민정신을 구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전연 엉뚱하기만 하다. 그가 택하는 곳은 교외에 있는 시의 원시림이다. 그 이유는 거기에 풍토와 개성과 사고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의를 요하는 것은 원시림이 새로이 개척하거나 건설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이 글의 후반부는 ‘영원의 일요일’, ‘시의 원시림’, ‘장미들의 뜨거운 온도’ 등의 모호한 문장이 등장함은 물론 시민정신에의 부합이라는 명제가 사라지고 퇴행적이며 현실도피적인 것으로서 ‘예술지상주의적인 태도’¹⁴⁾로 귀결되는 것이다.¹⁵⁾

이동하가 즐기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인환이 지나치게 ‘겉멋’에

14) 이소영, 『박인환 시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14집, 2004, 6. 251면.

15) 이동하는 이러한 예술지상주의적인 언어가 ‘시민정신에 이반된 언어작용’의 소산이라고 보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모순은 그대로 박인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정신적 혼란의 정직한 반영이라고 하였다. 이동하, 『박인환』, 문학세계사, 1993. 37면.

만 치우치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글에서 우리는 그가 부정적 현실에 대해 그 구체적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퇴행적이거나 도피적이거나 적어도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시작품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박인환의 작품 중에서 현실주의적 계열, 혹은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지칭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전쟁 이전 해방기에 발표된 것들로서 「인천항」, 「남풍」,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¹⁶⁾

이 작품들에서 그는 분명하고도 설명적이며 서사적인 이야기 구도로 현실적 관심사를 표명한다.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메란의 伴奏樂이 들려온다
오 약소민족
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

삼백 년 동안 너의 자원은
歐美 자본주의 국가에 빼앗기고
反面 비참한 희생을 받지 않으면
구라파의 반이나 되는 넓은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리는 사이 가메란은 미칠 듯이 울었다

(중략)

사나이는 일할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약한 여자들은 白人 아래 눈물 흘렸다
수만의 혼혈아는 살 길을 잃어 애비를 찾았으나
스라바야를 떠나는 商船은

16) 이 외에도 「식민항의 밤」, 「정신의 행방을 찾아」, 「자본가에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별써 기적을 올렸다

(중략)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人民의 해방
 세워야 할 너들의 나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성립하였다 그런데 연립임시정부란 또다시 박해다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모략을 부쉬라
 이제는 식민지의 고아가 되면 못쓴다
 全人民은 일치 단결하여 스킨처럼 부서져라
 국가 방위와 인민 전선을 위해 피를 뿌려라
 삼백 년 동안 받아온 눈물겨운 박해의 반응으로 너의 조상이 남겨놓은
 저 야자나무의 노래를 부르며
 오란다軍의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라

제구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
 힘있는대로 영웅되어 싸워라
 자유와 자기 보전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야욕과 暴壓과 비민주적인 民政策을 지구에서 부쉬내기 위해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人民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참혹한 몇 달이 지나면
 피흘린 자바섬(島)에는
 붉은 칸나꽃이 피려니
 죽음의 보람은 南海의 태양처럼
 조선에 사는 우리에게도 빛이려니
 海流가 부딪치는 모든 육지에선
 거룩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내일을 축복하리라

- 「인도네시아 人民에게 주는 詩」전 11연 중 1,2,5,7,8,9,10연 -

이 작품은 300년 동안 식민지로서 착취를 당해온 인도네시아의 참상을 고발하고 폭력적인 식민 정책에 맞서서 투쟁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이 시의 1연에서 7연까지 박인환은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처참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원의 강탈, 최하의 의식주 생활, 전 인민의 노예화, 백인들의 여성 폭력 등 이러한 사실적 묘사에 이어서 8연과 9연에서는 화자의 어조가 강해지면서 지배권을 재장악하려는 모략에 맞서 싸울 것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그는 ‘스콜처럼 부서져라’ ‘피를 뿌려라’ ‘기관총 진지에 뛰어들어라’ ‘영웅되어 싸워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우리의 해방 정국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약소민족/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제는/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욕’ ‘죽음의 보람은 남해의 태양처럼/조선에 사는 우리에게도 빛이려니’에서 인도네시아의 현실상황을 우리의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반제국주의 노선에 선 국가공동체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인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에서 조선의 해방 정국의 향방을 유추해 내고 있는 것이다.¹⁷⁾

10연과 11연에 오면 투쟁 이후에 올 희망과 낙관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박인환의 시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열차」에서도 나타나는데¹⁸⁾ 이 점은 ‘전쟁 이후에 쓰여진 모든 시들이 절대 절망에 빠져 있다는 점에 비교하여 주목되는 면이 아닐 수 없다.’¹⁹⁾

한 편 시 「남풍」은 월남 인민들의 독립투쟁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투쟁의 열기가 남풍으로 우리들에게 스며든다는 내용이다.

17) 김영철, 앞의 책, 111면

18) 「열차」의 마지막 3연은 다음과 같다. ‘다음 햇빛은 수목의 집단 바람의 호흡을 안고/눈이 타오르는 처음의 녹지대/거기엔 우리들의 황홀한 영원의 거리가 있고/밤이면 열차가 지나온/커다란 고난과 노동의 불이 빛난다/혜성보다도/아름다운 새날보담도 밝게’

19) 박민수, 앞의 책 205면.

이 두 편의 시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의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으면서 토운이 높다는 것,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작품들은 근원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의식 내용에 의해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프롤레타리아로서의 민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자신의 민족을 지키는 항쟁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²⁰⁾

「남풍」과 「인도네시아...」가 이국의 사정을 노래하면서 우리를 대입시켜 동일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정을 직접 노래한 것으로는 「인천항」이 있다.

海外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아들 때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
인천항구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銀酒와 阿片과 호풍이 密船에 실려오고
태평양을 건너 무역풍을 탄 칠면조가
인천항으로 나침을 돌렸다.

서울에서 모여든 謀利輩는
중국서 온 혈벗은 동포의 보따리같이
화폐의 큰 뭉치를 등지고
황혼의 埠頭를 방황했다

밤이 가까울수록
星條旗가 퍼덕이는 宿舎와
駐屯所의 네온사인은 붉고

20) 박민수, 앞의 책 204면 참조.

잔그의 불빛은 푸르며
 마치 유니온 작크가 날리든
 식민지 香港의 야경을 닮아간다

조선의 海港 인천의 埠頭가
 중일전쟁 때 일본이 지배했던
 상해의 밤을 소리없이 닮아간다

-「인천항」전 9연 중 5-9연-

인천항은 해외에서 동포들이 고국을 찾을 때 처음 상륙하는 곳이면서 신문물이 들어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은주와 아편과 호콩이 밀선에 실려 오고 태평양을 건너 칠면조가 들어오며 모리배들이 돈몽치를 등에 지고 부두를 방황하고 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인천항구는 일본이 주둔하던 상해와 같아서 또 다른 식민지배를 경계하고 있다.

박인환이 월남과 인도네시아, 중국까지를 염두에 두고 작품화한 것은 박인환을 포함한 <새로운 도시...>파 시인들이 표면상으로는 중립, 내면상으로는 우익쪽이었다고 하더라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을 드러내고 나아가 낙관적 전망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조선문학가 동맹의 노선에 일정 부분 부합된다고 볼 수도 있다.²¹⁾

그러나 박인환의 기질로 보나 주변 동인들의 성향으로 보아 이들이 좌익 쪽의 노선에 경사되었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 조병화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오히려 그 이유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좌익계의 문인들도 아니며, 우익계의 문인들도 아니었다. 도시적이며, 감각적이며, 코스모폴리탄적인 지성의 보헤미언들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항상 그리워하며 보다 세계적인, 보다 국제적인, 보다 인류적인 것에 대한 뜨거운 실존적 향수에 젖어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21) 송기환,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1. 참조.

있었던 그룹이었다. 이들은 아무런 문학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²²⁾

즉 시작 초기에 있어서 박인환의 현실인식은 부정적이고 현실비판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 외세의 침투에 의한 신식민지화의 경계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은 위의 작품들에서 보았듯이 그가 서문에서 밝힌 것 중에서 ‘문명’과 ‘자본’의 문제만 다루었을 뿐, ‘사상의 불균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방기 정국이 정치에서든 문단에서든 좌우 이데올로기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각기 다른 정권이 수립되어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애써 이념문제가 표출되는 현실을 무시했거나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명과 자본을 문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국이나 민족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찾기보다 제3국에서 찾아 우리와 동일시함으로써 간접적인 관계망 위에만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한 편 그 시적 대상이 되고 있는 제3국의 사정이 과연 당대 우리 현실과 얼마나 부합될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국내사정을 다룬 것으로는 현대문명의 폐해와 부정적 현실을 보여준 「인천항」이 있지만 그 현실도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고 현실의 적극적인 극복은 제3국을 통해서 제시되며 우리는 간접적인 관계망만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박인환의 초기시에서 그의 시선은 국내 현실보다는 세계적인 관심으로 향해져 있고 문제의식은 이념문제로 심각한 국내문제를 외면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나 신제국주의 등 세계적인 공통관심사에 치중하여 그것을 국내에 범박하게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그의 토운은 높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방정국의 혼란현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증언할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시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국제

22) 조병화, 「나를 부르는 소리」, 『박인환전집』 225면.

적인, 인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민족이 처한 눈앞의 구체적 현실, 이념의 문제에는 오히려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3. 중기의 시 - 전쟁의 사적 체험

박인환의 중기시는 대체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955년 3월 그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의 작품수가 대략 36편 정도로 그의 전체 작품 중 약 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이 박인환 시의 중심을 이룬다.

한국전쟁은 일본의 식민통치와 해방정국, 남북분단에 이은 한국 현대사에서의 거대한 질곡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1926년에 태어나서 일제시대를 보내고 해방정국의 소용돌이를 맞이하였으며 20세인 1946년에 등단한 청년 박인환에게도 이 전쟁의 상처는 엄청났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6.25가 박인환의 시세계에 남긴 흔적은 비단 위의 작품들처럼 직접 전쟁터를 소재로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겉으로는 전혀 전쟁을 언급하지 않은 전중, 전후의 많은 작품들에도 사실은 전쟁의 처참함과 그것이 시인에게 끼친 충격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분명히 6.25는 박인환의 정신에 깊고도 강렬한 상처를 심어 주었으며, 그 상처는 그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상처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는 한 마디로 답할 수 있다. ‘허무주의’인 것이다.²³⁾

위의 지적처럼 박인환의 중기의 시에는 절망과 죽음, 허무의식이 전 반적으로 짙게 배어있다.

23) 이동하, 『박인환 전집』, 48면.

1949년에 박인환은 경향신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피난을 가지 못 하고 9.28 수복 때까지 적 치하의 지하생활을 하였다. 수복 3일 전에는 딸을 낳았고 1.4 후퇴가 임박한 1950년 12월 8일 딸아들의 생일날 대구로 피난하였다. 1951년에는 경향신문사가 있는 부산과 대구를 왕래하면서 5월 육군중군작가단에 참여하여 중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시기 그의 작품에 전쟁의 생생한 체험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機銃과 砲聲의 요란함을 받아 가면서
너는 세상에 태어났다 주검의 세계로
그리하여 너는 잘 울지도 못 하고
힘없이 자란다.
엄마는 너를 껴안고 3개월간에
일곱 번이나 이사를 했다.

서울에 피의 비와
눈바람이 섞여 추위가 닥쳐오던 날
너는 입은 옷도 없이 벌거숭이로
貨車 위 별을 헤아리면서 南으로 왔다.

-「어린 딸에게」전 8연 중 1-3연-

이 작품에는 어린 딸을 안고 대구로 피난을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어린 딸이 태어난 세계는 ‘주검의 세계’이며 ‘피의 비’가 내리는 세계이다. 따라서 그는 ‘어린 딸이여 너는 언제까지나/행복할 것인가’고 묻는가 하면 ‘나의 어린 딸이여/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가 어데 있느냐/그때까지 너에게 알려 줄 사람이/살아 있을 것인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위의 시처럼 이 시기 그의 작품에는 나와 내 주변의 것들, 신변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아 창백한 세상과 나의 생애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고독한 피로에서
 氷花처럼 잠들은 지나간 세월을 위해
 詩를 써본다.

그러나 窓 밖
 암담한 商街
 고통과 嘔吐가 동결된 밤의 쇼우윈도우
 그 곁에는
 절망과 기아의 행렬이 밤을 새우고
 내일이 온다면
 이 정막의 거리에 폭풍이 분다.

- 『세 사람의 가족』전 6연 중 5-6연 -

山과 강물은 어느 날의 繪畫
 피 묻은 전신주 위에
 태극기 또는 작업모가 걸렸다.
 학교도 군청도 내 집도
 무수한 포탄의 작열과 함께
 세상엔 없다.

인간이 사라진 고독한 神의 토지
 거기 나는 동상처럼 서 있었다.
 내 귓전엔 싸늘한 바람이 설레이고
 그림자는 망령과도 같이 무섭다.

어려서 그때 확실히 평화로웠다.
 운동장을 뛰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와 내 동무들은
 지금은 가고
 연기 한 줄기 나지 않는다.

전쟁은 물론 시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키지만 박인환의 시에서 전쟁은 표피적으로만 인식될 뿐 그 본질에 대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1950년대 문학에서 전쟁 모티브의 수용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박인환의 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인이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만을 ‘슬프게’ 인식하는 일반론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된다.

그가 종군기자로서 경험한 생생한 체험들은 구체적인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바라봄으로써 역사적 본질에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다.

陰散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에
 勇士가 누워 있었다.
 구름 속에 장미가 피고
 비둘기는 野戰病院 지붕 위에서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기다리는
 용사는 대열을 지어
 戰線으로 나가는 뜨거운 구두 소리를 듣는다.
 아 창문을 닫으시오.

高地奪還戰
 제트기 박격포 수류탄
 어머니! 마지막 그가 부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옛날은 화려한 그림책
 한 장 한 장마다 그리운 이야기
 만세소리도 없이 떠나

흰 붕대에 감겨
그는 남 모르는 토지에서 죽는다.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는 피와 청춘을
자유를 위해 바쳤다.
음산한 잡초가 무성한 들판엔
지금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 「한 줄기 눈물도 없이」 전문 -

전장을 소재로 한 다른 시들 「신호탄」, 「서부전선에서」, 「어떠한 날 까지」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박인환의 어느 작품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별자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삶과 죽음, 허무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그러한 현실의 각 장면은 그로 하여금 구체적 인간 조건으로서의 삶의 문제, 즉 실존에 대한 강력한 의문만 품게 만들었다.’²⁴⁾

전쟁이 공적 영역에 대한 힘의 집중을 의미한다면, 공적 영역의 위압이 강화될 때, 이는 그 자체로 개별자의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적 개인들로 파편화시키고 다시 그 개인이 가지는 경험들을 파편화시킨다. 이는 ‘인간소외’의 전형적인 예다. 그렇다면 소외에 맞서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묻는 방식은 어렵지 않게 상정된다. 개별자에 대한 집착은 결국 전쟁의 흐름에 대한 역사적 통찰보다 휴머니즘적 지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²⁵⁾

‘195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휴머니즘 전개가 개별자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²⁶⁾고 할 때 박인환의 시들은 그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24) 김은영, 앞의 논문, 111면.

25) 문영진, 「전쟁과 1950년대 소설」,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6, 89-95면 참조.

것이다.

‘나’는 전쟁 발발의 정치적 배경이나 역사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다만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이 두렵고 슬플 뿐이다. 그는 전쟁에서 죽은 용사들에 대해서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지만 ‘더욱 세월이 흘렀다고 하자./누가 그들을 기억할 것이냐.’고 함으로써 세월의 무상함과 그들을 죽게 만든 이념적 정당성의 몰가치성에 더 슬퍼하고 있다.

즉 그는 6.25 전쟁에 대해서 그 이념적 배경이나 본질, 나아가서 전쟁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에 대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고 이를 슬퍼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인환의 시에는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작 이들이 싸워야 할 적은 적군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그림자 곧 ‘죽음’ 그 자체이다.’²⁷⁾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전쟁현실을 바라보는 역사적 통찰이나 이념적 지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박인환의 초기시에서 보았던 내용들, 즉 부정되어야 할 현실 중에서 그가 문명과 자본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사상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그것이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국내적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 것,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와 월남에 관심을 가진 것 등이 일맥상통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에게는 실존주의의 또 다른 명제 즉 참여적 의미에서 ‘실존은 행동한다’는 명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박인환이 이렇게 본질보다는 파편적이고 외면적인 현실에 치중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동하는 <새로운 도시>파에 대해서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26) 문영진, 앞의 논문.

27) 김은영, 앞의 논문 119면 참조.

표명했다는 김수영의 말을 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중립자처럼 보인다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에 불과하고, 밑바닥에 있어서 그들은 명백한 우익이었다 …(중략) … 사회의 기본 구조는 현상태를 견지하는 가운데, 예술의 왕국이 적당한 배려를 받으며 그럭저럭 유지되고, 그런 한계 내에서 얼마든지 걸멋도 부리고 기염도 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네들의 우상이었다. 박인환이 소속한 계층인 도시 중산층의 입장이 그러한 것이었고, 그네들이 이상으로 삼고 동경했던 서구의 보헤미안들이 또한 그러한 견지에서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때때로 언급한 박인환의 시대적 고민이라는 것도 결코 이런 태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²⁸⁾

즉 박인환을 비롯한 <새로운 도시>파들의 신분계층이나 지향점이 현실을 직시하거나 역사적인 통찰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서 그는 「자본가에게」같은 작품을 ‘단지 유행을 따른 일시적 포즈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박인환은 그의 선시집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10여 년 동안 시를 써왔다. 이 세대는 세계사가 그러한 것과 같이 참으로 기묘한 불안정한 연대였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해 온 그 어떠한 시대보다 혼란하였으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이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니며, 정치가도 아닌 것을 알면서 사회와 싸웠다.

(… 중략…)

여하튼 나는 우리가 걸어온 길과 갈 길,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분열(分裂)한 정신을 우리가 사는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순수한 본능과 체험을 통해 본 불안과 희망의 두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28) 이동하, 『박인환』, 46면.

써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에 실은 작품들을 발표했었다.²⁹⁾

여기에서 박인환은 불안정한 시대에서 시로써 사회와 싸워왔음을 말하고 있고 불안과 희망 중 어떤 것을 써야하는지를 생각하며 작품활동을 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박인환과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이 W.H.오든과 S.스펜더를 중심으로 한 뉴컨트리파의 진보적 모더니즘, 혹은 사회적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았다³⁰⁾고 하더라도 실제 작품상으로 나타난 현상은 이와 다른 것이었다.

엘리어트의 「황무지」가 절망을 절망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의 탈출을 꿈꾸고 있다면 박인환의 경우 그러한 세계전망의 꿈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가 지적 사고를 통해서 논리화하고 있는 문학적 의지와 실제상황을 형상화하는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내재함을 뜻한다.³¹⁾

즉 박인환에게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의지나 사상의 빈곤이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품 초기에 보였던 제3국에의 관심, 다소 낙관적인 미래는 막상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망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여 제기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제 3국을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그럴 때 그에게는 낙관적 전망도, 싸움을 독려하는 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었던 셈이다.

그는 시를 가지고 사회와 싸웠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는 현상의 어떤, 본질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앞에 드러난 현상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슬픔이나 두려움과 싸웠던 것이고 ‘시의 원시림’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신의 부정, 신의 죽음은 이런 정신적 배경이 그

29) 박인환, 「박인환 선시집 후기」, 『박인환전집』, 194-195면.

30) 박인환, 「현대시의 불행한 단면」, 『박인환 전집』, 161-170면.

31) 박민수, 앞의 책, 210면 참조.

깊이를 더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4. 후기 - 아메리카시초에 나타난 인식

박인환은 1952년에 경향신문사를 퇴사하고 대한해운공사로 이직하였고 1955년에는 화물선 ‘남해호’의 사무장 자격으로 미국여행을 하게 된다. 『선시집』에 있는 「아메리카시초」편에는 이 19일 동안의 여행기간³²⁾에 쓴 12편이 들어있는데 이는 그의 시 전편이 73편임을 본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 시초」에서 우리는 박인환이 겪은 국내적 상황, 즉 전쟁으로 인한 절대허무라고 이름지울 수 있는 정서가 외국과 조우하면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더니스트로서의 선진 도시문명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6.25 전쟁을 혈맹으로 도운 미국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아쉽게도 박인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마디로 한다면 그것은 이국 정서와 문명비판의식, 또는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고 전쟁의 상처에 비한다면 그 의식내용은 단절적이기까지 하다.

에베레트 異國의 항구
그날 봄비가 내릴 때
돈나 캄벨 잘 있거라.

바람에 펄럭이는 너의 젓빛 머리

32) 박인환, 「19일간의 아메리카」, <조선일보> 1955.5.13. 여기에 따르면 그는 Tacoma, Everett, Anacortes, Port Angeles, Portland와 그 부근의 도시, 총 약 10여군데를 방문하였다고 되어있다.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내 머리는 화끈거린다.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알면서도
젊음의 눈동자는 막지 못하는 것.

처량한 기적
데키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이제 나는 육지와 작별을 한다.

- 「異國港口」전 6연 중 1-4연 -

대낮보다도 눈부신
포틀란드의 밤거리에
단조로운 그렌 미이라의 랩소디가 들린다.
쇼우원도우에서 울고 있는 마네킹.

앞으로 남지 않은 나의 잠시를위하여
기념이라고 진 피이즈를 마시면
녹슬은 가슴과 뇌수에 차디찬 비가 내린다.

나는 돌아가도 친구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거나
유리로 만든 인간의 묘지와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있던
도시의 계곡에서
흐느껴 울었다는 것 외에는.....

- 「새벽 한시의 詩」전 5연 중 1-3연 -

이들 작품에 나타나 있는 것은 결국 이국정조와 감상주의 이상이 아니다. ‘유리로 만든 인간의 묘지’, ‘벽돌과 콘크리트 속에 있던 도시의 계곡’ 등은 박인환이 도시문명을 어떻게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에게 불빛이 빛나는 도시의 거리는 ‘허영의 네온’이며, ‘여기선 인

간 생명을 노래하지 않고/침울한 상념만이 나를 구한다.’ ‘이 이국의 땅에선 나는 하나의 미생물이다.’등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미국에서 그가 본 것은 ‘많은 사람이 살고 많은 사람이 울어야 하는’(「어느날」)곳이고 ‘모든 비애와 환희’가 있는 곳이면서 ‘아메리카는 휘트먼의 나라로 알았건만/아메리카는 링컨의 나라로 알았건만/쏟아진 눈물을 흘리며/브라보 …… 코리언 하고/흑인은 술을 마시’는 곳으로서 실망스러운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가 하면 그는 다양하고 화려한 도시문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동경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녹슬은
은행과 영화관과 전기세탁기

럭키 스트라이크
VANCE 호텔 BINGO게임.

영사관 로비에서
눈부신 백화점에서
부활제의 카아드가
RAINIER맥주가.

나는 옛날을 생각하면서
텔레비전의 LATE NIGHT NEWS를 본다.
캐나가 CBS방송국의
광란한 음악
입맞추는 紳士와 娼婦.
照準은 젓가슴
아메리카 워싱턴주.

- 「투명한 버라이어티」전 20연 중 1-4연 -

이 시기에 박인환이 겪는 경험은 색다른 것으로서 다양하고 화려한 미국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혼란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혼란스런 정서는 곳곳에 나타나는 데 예를 들면

‘테레비존도 처음 보고/카로리가 없는 맥주도 처음 마시는/마음만의 신사/즐거운 일인지 슬픈 일인지/여기서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에베레트의 일요일』)

‘나는 들었다 보았다/ 모든 비애와 환희를.’(『어느날』)

‘혼란과 질서의 반복이/물결치는 거리에’(『투명한 버라이어티』)

등에서 미국문명에 대한 양면적 감정을 나타낸다. 즉 비애와 환희를 동시에 맛보기도 하고 혼란과 질서가 반복되며 이러한 것이 즐거운 일인지 슬픈 일인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미국여행기의 시 중에는 소박하지만 민족적 자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당신은 일본인이지요?

차이니스? 하고 물을 때

나는 불쾌하게 웃었다.

거품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나도 물었다

당신은 아메리카 시민입니까?

나는 거짓말 같은 낱아빠진 역사와

우리 민족과 말이 단일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황혼.

타아반 구석에서 흑인은 구두를 닦고

거리의 소년이 즐겁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

- 『어느 날의 詩가 되지 않는 詩』전 3연 중 1연 -

동양인을 보고 당연히 일본인이 아니면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에게 그는 오히려 당신은 미국시민이냐고 되묻고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며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자각, 또는 민족의식은 소극적 수준에 머물거나 시적 소재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지닌다.

芬蘭人 미스터 몬은
 자동차를 타고 나를 데리러 왔다.
 에베레트의 일요일
 와이샤쓰도 없이 나는 한국노래를 했다.
 그저 쓸쓸하게 가냘프게
 노래를 부르면 된다
파파 러브스 맘보.....
 춤을 추는 돈나
 개와 함께 어울려 호숫가를 걷는다.

- 「에베레트의 일요일」전 4연 중 1연 -

미스터 몬은 트럭을 끌고
 그의 아내는 콧과 입을 맞추고
 나는 「지렛」회사의 텔레비전을 본다.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는
 이제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라고 내 손을 잡고
 시애틀 시가를 구경시킨다.

- 「어느날」전 4연 중 2연 -

‘와이샤쓰도 없이’ 나는 한국노래를 ‘그저 쓸쓸하게 가냘프게’ 부르는데, 이러한 장면은 그냥 시의 정서상 도움을 줄 뿐 더 이상 의식적으로 확산되거나 심화되지는 않는다. 개와 함께 호숫가를 걷는 정도의 장면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 직후에 미국을 방문한 그에게 ‘한국에서 전사한 중위의 어머니’는 손을 잡고 시내를 구경시키는 것으로 시적 장치는 끝난다. 즉 여기에 등장하는 전쟁이나 민족적 정서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시의 정서적 매개

체로 사용될 뿐이지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이 회피되고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 것이다. 각각의 시의 대체적인 정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감상적이고 이국적인 것으로 흐르고 말기 때문이다.

즉 ‘아메리카 시초’는 여행자의 이국적 정조,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단순한 여행자의 관점만 유지될 뿐, 그가 체험한 전쟁의 황폐화 현상과 그 의식 내용상 연속적이지 못 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태평양을 건너면서 느끼는 정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불안을 이야기했었을 때
이 바다에선 砲艦이 가라앉고
수십만의 인간이 죽었다.
어둠침침한 조용한 바다에서 모든 것은 잠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가?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서.
-「태평양에서」전 5연 중 3연 -

따라서 우리는 미국 여행기의 경험을 형상화한 박인환의 <아메리카 시초>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³³⁾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의식이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소재적인 차원, 정서적인 매개체로서 다른 시적 소재들과 대등한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깊이 있는 내적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3) 한명희, 「박인환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85집, 2004, 9.

5. 결론

박인환의 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그의 시에 나타나는 리얼리즘 경향, 혹은 현실주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시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표명하지 않았고 퇴행적이고 관념적인 ‘시의 원시림’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시작 전시기를 통해서 확인 된다.

그의 초기시에는 현실주의적 경향의 시들이 다수 있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색적이지만 그것은 민족의 구체적 현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제 3국의 사정을 설정하고 있고 그에 빚대어 우리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지만 시대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는 이념문제가 표출된 민족의 현실을 애써 외면 하였거나 그들이 내세운 세계주의의 결과일 것인데 어쨌든 현실인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체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즉 그는 문명과 자본에 대해서, 또 세계적인, 인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고 상대적으로 민족이 처한 눈앞의 구체적 현실, 유독이 이념의 문제에는 소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그의 시작 전 시기에 걸쳐서 확인되는 것이었다.

중기에 주로 나타나는 전쟁 소재의 시들은 6.25전쟁 자체가 표면적이고 일반적으로만 이해되고 있을 뿐, 전쟁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나, 6.25 전쟁이 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즉 그는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는 전쟁을 개인적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대응한 결과이다.

후기의 미국여행기에 쓴 시편들은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과 동경이 혼란스럽게 공존하고 있고 민족의식이 나타나지만 소극적이며, 대개의 경우 소재적 차원에 머물거나 정서적 매개물 이상으로 심화, 확대되지 않았다.

즉 그는 시를 가지고 사회와 싸웠다고 언급하였지만 막상 그가 싸운 상대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것도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파악되는 사회의 모습에 ‘슬프게’ 반응하는 ‘허무한’ 자신이었던 셈이다.

주제어 : 박인환(Park In-Hwan), 현실지향(Realism), 후반기(Hubangi)
휴머니즘(Humanism), 모더니즘(Modernism), 민족의식(the
national conciousness)

참고문헌

- 『박인환전집』, 문학세계사, 1986.
- 김은영, 「1950년대 모더니즘 시 연구」, 창원대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영철, 『한국 전후 문학의 기수 박인환』,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 김춘수, 『의미와 무의미』, 문학과 지성사, 1976.
- 류순태, 『한국 전후시의 미적 모더니티 연구』, 월인, 2002.
- 문영진, 「전쟁과 1950년대 소설」,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
원, 1996
- 박민수, 『한국 현대시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국학자료원, 1996.
- 박윤우, 「1950년대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송기환, 「역사의 연속성과 그 문학사적 의미」,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 연구』,예하,1991.
- 오세영, 「<후반기> 동인의 시사적 위치」,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
사, 1989.
- 이동하, 『박인환』, 문학세계사, 1993.
- 이소영, 「박인환 시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14
집, 2004,
- 이지엽, 『한국전후시 연구』,태학사, 1997.
- 한명희, 「박인환시 아메리카 시초에 대하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85
집, 2004, 9.
- T.W.Adorno, C. Lenhardt(trans.) *Aesthetic Theor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and New York, 1984, p.320.

<Abstract>

The Aspects of Realism on the Park In-Hwan's Poetry

Kim, Eun-Cheol

To understand the world of Park In-Hwan's poetry, the writer analysed the realistic tendency of his poetry. At the poetics, he denied the reality, but the method of solution was regressive and ideal.

At the primary stage, there are some realistic poems which is optimistic, but it was abstract and far from the domestic reality. He was concerned about the civilization and the capitalism, international problem and the human problem, relatively he was negligent of the national concrete reality, especially the ideological problem.

At the middle stage, he wrote about The Korean War. But the war was expressed by the external and universal appearance. That is, He was not concerned about the essence of the war or the peculiarity of the Korean War. So he sang the fear and sadness of the universal war, it is the result of the personal sightseeing and the personal corresponding to the war.

At the last stage, in the poems written during the American traveling, there are coexistence of the deny and the yearning about the city civilization. There existed the national consciousness, but in most cases it was limited to the material dimension or the emotional medium.

That is, he mentioned that he struggled against the society, but the opponent was not the society but he himself. Furthermore, it was 'saddly' responding and 'empty' himself to the society.

김은철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33-730-0215

e-mail: eckim@mail.sangji.ac.kr

이 논문은	2005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12월	30일	간행함